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생명의 떡

(요 6:30-35)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의 '떡'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떡'이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세 번 나오는데 32절에는 '참 떡'이라 했고, 33절에는 '하나님의 떡',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1.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요 6:30)

고전 1:22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예증이 본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떡을 먹은 유대인들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 것처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그것 말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에게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시적인 경험을 요구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현상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1) 만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31절)

저들이 원하는 표적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모세보다 귀한 분이라면 모세는 우리에게 매일 떡을 주었는데 예수는 광야에서 겨우 한 번 떡을 주었으니 더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논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2)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32절)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발언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단어로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모세에 대한 환상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알고 예수님께 사사건건 "모세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3) 하늘에서 내려 온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33절)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내려왔다'는 현재 분사형으로 내려온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계속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가 오신 영향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하는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만나를 머릿속에 생각하며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은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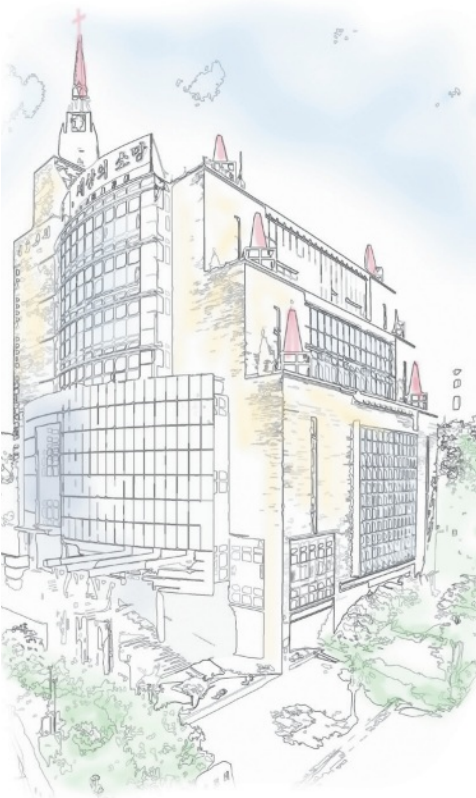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본문의 교훈

첫째로, 떡은 생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게 되어 있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고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이도 살고 대학을 못 가도 살고 나라가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은 의무 사항을 훨씬 뛰어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 이상입니다.

둘째로, 이 떡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먹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예수는 누구나 먹어야 할 떡이고 먹을 수 있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셋째로, 이 떡은 매일 먹어야 할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양식을 먹어 돌보시듯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품성과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 청빙(請聘)과 성도의 역할

교회는 2021년을 교회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6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 각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담임목사 청빙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준비가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서바협 대표로 수고한 바 있고 이번 특별위원회의 전략 기획, 홍보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시환 집사는 성도들 사이에 청빙의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 서울교회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따른 청빙의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의 영성 점검은 물론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바른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그동안의 목회자로 인한 교회 분쟁의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시점에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 내외의 어려움과 결코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서울교회의 방향성 정립 즉, 서울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적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서울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 성도들이 원하

“
청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

우리의
영성 점검은 물론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바른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

급적 빠른 시일에 모시되 충분한 검증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새로 청빙 될 담임목사는 타 교회에서 일정 기간 사역을 거쳐 충분한 목회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만한 분으로서 동시에 가능한 처음 안식년을 갖는 시점 이전에 은퇴하게 될 연령대의 담임목사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회에 소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날 목회자로 인한 아픔을 교훈 삼아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목회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담임목사의 청빙이 순탄하고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숙 권사(전략 기획·홍보 소위원회 위원)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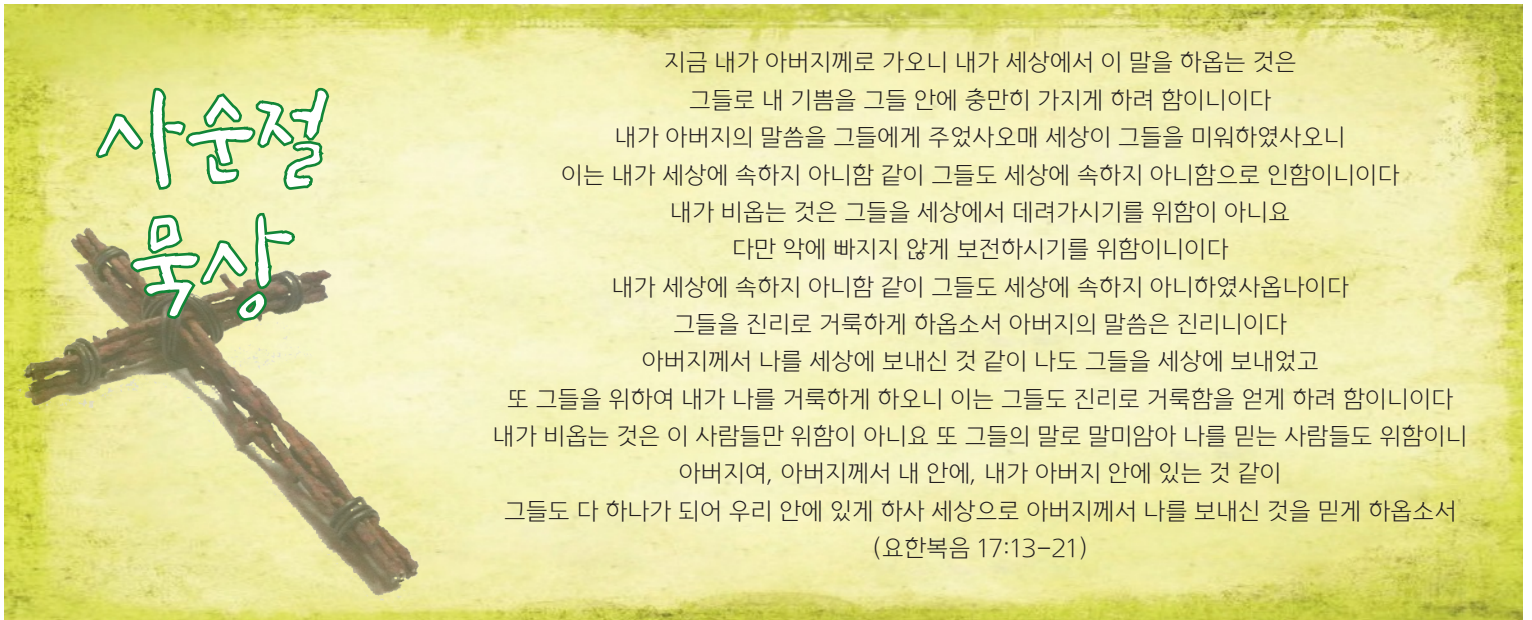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1.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2.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3.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4. 결과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5.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6.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인원에 맞게 변동)
7. 응모내용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다. 교회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예배로 인해 인터넷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방법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품질로 전송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⑥ 제출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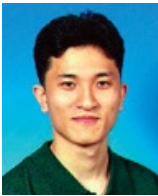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셨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3-21)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겸손 집사
(중등부 부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찾아와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에 일상의 모든 것은 물론 예배까지도 제한을

받는 요즘 시대에 방역 우선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비대면이 우선시되고 하나님까지도 비대면화? 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 학생들의 신앙 성숙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러움을 느낍니다. 매년 신학기 이전에 진행되던 은혜로운 수련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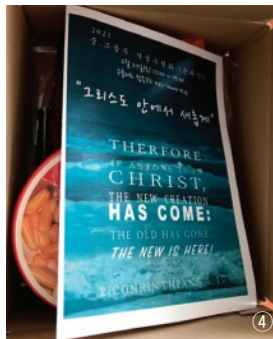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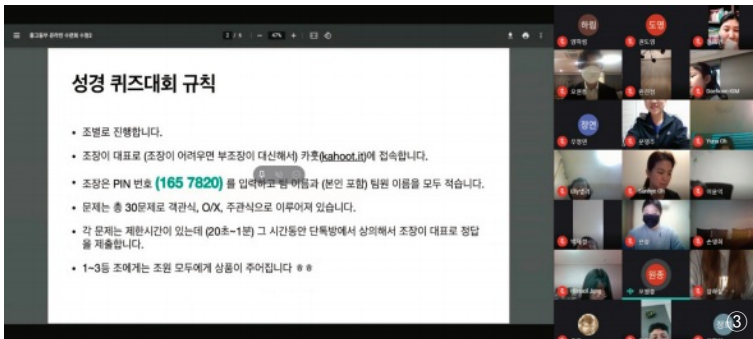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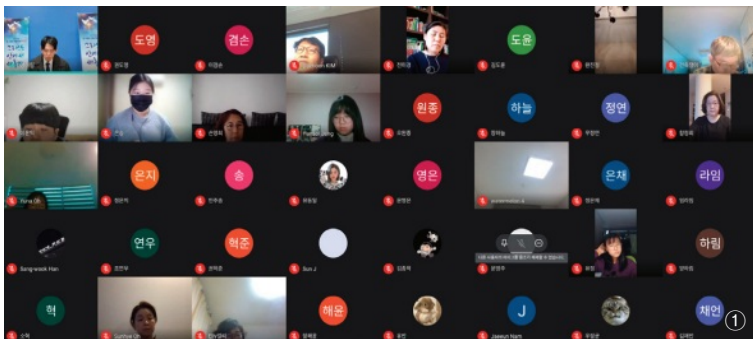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온라인 수련회라는 아이디어로 짧은 시간이나마 모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집회를 사전 녹화하고 각자의 집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련회 워크북과 준비물, 약간의 간식으로 구성된 수련회 키트를 집으로 발송하여 학생들이 기대심을 갖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주제 성구로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자는 전도사님의 감동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주제 설교에 맞는 온라인 팀별 퀴즈대회 진행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사전 질문 취합으로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전도사님과 청년 선생님께 상담을 받는 순서까지... 두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박 3일의 일정을 녹여 내기 위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온라인 집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소부제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과 자녀분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①②③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 ▶ ④⑤ 수련회 키트

청년1·2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영적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모든 회중이 큰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스 10:12)

이소윤 성도
(청년1부 서기)

살 롬! 지난 2월 19-20일 동안 열린 <말씀 온 라이브>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시국에 따른 철저한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용곤 전도사님의 <당신의 말씀대로> 청년부 표어인 말씀을 듣고, 요즘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음주, 결혼, 문신, 혼전 순결 등의 주제로 Q&A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각 팀별로 오프라인으로 4인 이하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헌혈을 하고, 청년부가 후원하는 어린이 '웃자판'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고, 청년부 임원단이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며,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실천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의 영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청년부 부흥과 영적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임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의 영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청년부 부흥과 영적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임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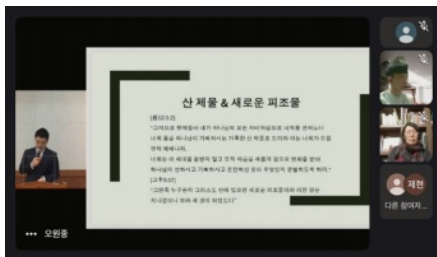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온라인으로 진행 된 청년 1·2부 2021겨울 수련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8일	월	신 29:1-31:29		대하 1-8	
3월9일	화	신 31:30-34:12		대하 9-18	
3월10일	수	수 1-4		대하 19-25	
3월11일	목	수 5-8		대하 26-33	
3월12일	금	수 9-11		대하 34-36, 스 1-2	
3월13일	토	수 12-14		스 3-10	
3월14일	주일	수 15-17		느 1-7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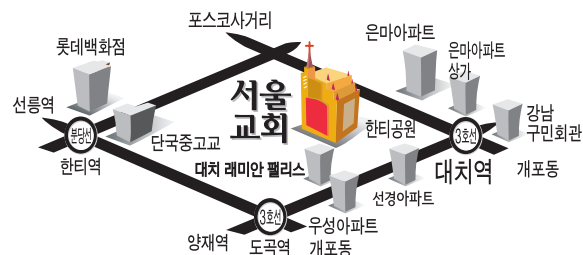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3.1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여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국내외적으로, 안으로는 나누어져 있는 민심이 헌법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전 국민에게 접종되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이신 성도들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